

전통 태권도 복원 · 계승 발전 ‘앞장’

무주군, 글로벌태권도연맹 · 국제태권도사관학교추진위와 협약… 태권도원서 ‘무도 태권도 글로벌 싱크탱크 서밋’

무주군은 지난 21일 군수실에서 글로벌전통태권도연맹(총재 준리), 국제태권도사관학교설립추진위원회(위원장 정진욱)와 ‘태권도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이날 협약은 ‘전통 태권도의 복원과 계승 발전’이라는 공동의 비전을 바탕으로, 글로벌 태권도 문화 확산과 지역 발전을 도모한다는 취지에서 추진됐다. 이들은 앞으로 △국제 태권도 문화 교류, △태권도 교육 및 연구 지원, △지역경제 활성화, △글로벌 홍보 협력 등에 협력해 나가기로 했다.

특히 무주군은 태권도 관련 국제회의를 비롯한 각종 국제행사 등을 유치해 지역경제 활성화를 도모하고, 글로벌전통태권도연맹이 보유한 네트워크를 활용해 글로벌인재양성센터 등 태권도 현안을 세계인들과 공유할 방침이다.

황인홍 무주군수는 “이번 협약을 통해 무주가 태권도 성지로서의 국제적 위상을 높이는 동시에, 세계 태권도인들과 태권도의 전통적 가치와 비전을 확산해 나갈 것”이라며 “무엇보다 글로벌인재양성센터가 국제적인 협력 속에서 더욱 탄탄하게 자리매김하길 기대한다”라고 밝혔다.



무주군은 지난 21일 군수실에서 글로벌전통태권도연맹, 국제태권도사관학교설립추진위원회와 ‘태권도 문화 교류 및 협력을 위한 업무협약’을 체결했다.

한편, 무주 태권도원에서는 지난 17일부터 23일까지 글로벌전통태권도연맹이 주관하는 ‘2025 무도 태권도 글로벌 싱크탱크 서밋’ 행사가 진행돼

150여 개국에서 350여 명이 참가해 교류했다. ‘글로벌전통태권도연맹’은 5대양 7대륙, 160여 개국 규모의 태권도 네트

워크를 기반으로 태권도의 정신과 문화 · 역사적 가치를 계승 · 발전시키는 데 앞장서고 있다.

/무주=전문선 기자

배드민턴 안세영,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문체부, 수상자 명단 발표… 유공자 포함 총 69명 선정

배드민턴 여자 단식 세계 랭킹 1위 안세영이 대한민국체육상 대통령 표창 경기상을 수상했다.

문화체육관광부(문체부)는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 수상자 명단을 지난 21일 발표했다.

안세영은 대한민국체육상 경기상 부문 수상자로 선정됐다.

2025년 체육발전유공 포상 및 제63회 대한민국체육상 전수식은 이날 오후 서울 중구 웨스턴조선서 울에서 개최됐다.

현재 호주오픈 대회 일정을 소화 중인 안세영은 대리 수상했다.

1963년 제정된 대한민국체육상은 국민체육 발전 및 진흥에 공적이 있는 자에게 수여하는 상이다.

2024 파리올림픽 금메달리스트인 안세영은 올해 출전한 13개 국제대회 중 9개 대회를 우승했다.

올해 대한민국체육상 지도자상은 배드민턴 안세영을 발굴한 최용호 감독이 뽑혔다.

장애인 경기상은 2024 파리 패럴림픽에서 감동을 준 김황태, 장애인체육상은 고광만 여주시장애인체육회 부회장이 수상했다.

문체부 장관 표창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은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의 아버지 황경선 씨가 받았다.

체육발전유공 부문에선 체육훈장 53명, 체육포장 7명 등 총 60명이 수훈 대상으로 이름을 올렸다.

문체부 장관 표창 특별상인 ‘체육인의 장한 어버이상’은 수영 국가대표 황선우의 아버지 황경선 씨가 받았다.

사격 김종현, 유도 방귀만, 김성민, 고 최상영 전 재일본대한체육



안세영

회장 등 총 18명은 맹호장을, 유도 김성현 등 총 15명은 거상장을 받았다.

양궁 김성훈 등 총 7명은 백마장, 조정 지도자 안효기는 기린장, 태권도 지도자 장세욱 등 총 7명은 체육포장 수훈자로 이름을 올렸다.

체육발전유공은 1973년부터 체육 발전에 공을 세운 체육인에게 수여하는 체육 분야 최고 영예의 서훈이다.

국제경기대회에서 입상한 선수와 지도자, 국가체육발전유공자 등 2개 부분으로 나뉘며, 대상자는 공적 내용과 대회별 평가 기준에 따른 점수, 훈격별 적용 국제대회 기준의 총족 여부 등에 따라 정해진다.

최희영 문체부 장관은 “우리 국민에게 감동과 자긍심을 심어준 체육인들에게 감사드립니다”며 “문체부는 체육인들이 공정하고 안전한 환경에서 운동에만 전념할 수 있도록 정책적 지원을 아끼지 않겠다”라고 밝혔다.

/뉴시스

내달 13일 새만금 생생배드민턴

새만금개발청(청장 김의겸)은 12월 13일 군산 실내배드민턴장에서 새만금 지역 주민의 건강을 살리고(生), 경제도 살린다(生)는 의미로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를 개최한다.

이번 대회는 행정안전부 주관, 지방경제살리기 일환으로 추진된 ‘새만금 지역 경제활성화를 위한 상생자매결연 업무협약’ 후속으로 새만금 지역 직장인과 주민을 대상으로 진행된다.

새만금개발청이 주최하고 군산·김제·부안 배드민턴 협회가 주관하며, 군산시·김제시·부안군·새만금개발공사가 후원하는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는 약 800여 명의 참가자가 예정됐다.

남자복식, 여자복식, 혼합복식 부문에서 실력을 겨루며, 지역 간 교류를 통한 화합을 이룰 예정이다.

새만금 생생배드민턴대회 참가자는 전국 배드민턴대회 사이트(www.badmintongame.co.kr)를 통해 12월 7일까지 신청하면 되며, 400팀을 선착순으로 모집할 계획이다. /이민호 기자

손흥민 vs 메시… 내년 MLS 개막전서 ‘격돌’

(미국 프로축구)

2028 LA 올림픽 주 경기장서

축구 국가대표 주장 손흥민(로스앤젤레스FC·LAFc)과 리오넬 메시(인테르 마이애미)가 다음 시즌 미국 프로축구 메이저리그사커(MLS) 개막전에서 격돌한다.

지난 21일(한국 시간) MLS가 발표한 2026시즌 정규리그 일정에 따르면, LAFc와 마이애미는 내년 2월 22일 오전 11시30분 미국 캘리포니아주 LA의 LA 메모리얼 폴리스티움에서 맞붙는다.

지난여름 잉글랜드 프로축구 프리미어리그(EPL) 토트넘 홋스퍼를 떠나 LAFc 유니폼을 입은 손흥민과 2023년 미국에 입성한 메시의 첫 맞대결이다.

특히 LAFc의 기존 홈구장 BMO 스타디움(2만2000석) 대신 2028 LA 하계 올림픽 주 경기장으로 활용될 LA 메모리얼 폴리스티움(7만7500석)에서 열리는 게 눈에 띈다.

‘손흥민 대 메시’를 보기 위해 구름



관중이 몰릴 걸 예상하고 내린 선택이다.

MLS는 다음 시즌에 주목할 10경기 중 가장 먼저 LAFc와 마이애미의 개막전을 꼽으며 “두 상징적인 팀이 상징적인 경기장에서 시즌을 시작한다”며 “LA 메모리얼 폴리스티움은 MLS 최고의 스타인 손흥민과 메시가 맞붙기에 최적의 장소”라고 기대했다.

다만 다음 시즌 전 손흥민과 메시가 그라운드에서 겨룰 가능성도 존재한다.

MLS컵 플레이오프(PO) 2라운드(8강)에 진출한 LAFc와 마이애미가 각 콘퍼런스를 제패할 경우, 현지 시간으로 내달 6일 예정된 MLS컵 결승에서 맞붙을 수 있다.

손흥민의 LAFc는 23일 오전 11시 30분 밴쿠버 화이트캡스와 경기를 치렀으며, 메시의 마이애미는 이튿날인 24일 오전 7시 신시네티와 MLS컵 8강을 치른다.

LAFc가 상대한 밴쿠버에는 독일 프로축구 분데스리가 바이에른 뮌헨 레전드 출신인 토마스 뮐러가 뛰고 있다.

뮐러는 “손흥민이 함부르크와 레버쿠젠에서 뛰던 시절 내가 뛰던 뮌헨은 늘 상대를 압도했다. 8-2나 9-1 정도로 승리했던 것 같다”며 도발하기도 했다. /뉴시스

‘전북 원클럽맨’ 최철순 현역 은퇴 선언

30일 서울과 홈 경기서 은퇴식

프로축구 K리그1 전북 현대의 ‘원클럽맨’ 수비수 최철순(38)이 올 시즌을 끝으로 은퇴한다.

전북 구단은 오는 30일 FC서울과의 하나은행 K리그1 2025 최종전에서 최철순이 은퇴식을 한다고 밝혔다.

2006년 프로 데뷔한 최철순은 군 복무였던 상무 시절을 제외하고 전북에서만 활약한 원클럽맨이다.



대표팀에서는 2010년 A매치 데뷔전을 치른 뒤 2018 러시아월드컵 최종예선 등 11경기에 출전했다. /뉴시스

20년간 전북에서 511경기에 출전하며 K리그1 10회, AFC 챔피언스리그 2회, 코리안컵 2회 등 14번의 우승컵을 들어 올렸다.

